진행순서

사회 : 임제린 수원시정연구원 성과확산팀장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0:00 - 10:10 10′	개회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등 • 인사말 및 환영사 – 금가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 원장 • 단체 기념사진 촬영	
10:10 - 10:40 30′	발제	• 주제발표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그리고 수원특례시의 예방·대응체계 구축 방안** (구본용 前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10:40 - 11:35 55′	토론	• 지정토론	좌장
11:35 - 11:55 2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1:55 - 12:00 5′	폐회	• 총평 및 마무리	

패널구성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좌장	금가현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발제	구본용	前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토론	김대중	경기화성동탄경찰서 범죄심리사
	백인서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
	이미영	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이승현	법무법인 대청 대표변호사

목차

발제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그리고 수원특례시의 예방·대응체계 구축 방안 ····· p.03
└ 구본용 前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지정토론

01 현장에서 본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실태와 예방 ····· p.17
└ 김대중 경기화성동탄경찰서 범죄심리사

02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가정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과 실천방안 ····· p.18
└ 백인서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

03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가정 내 갈등의 확산, 예방에서 회복까지 ·· p.24
└ 이미영 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04 고위기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 과정 ····· p.27
└ 이승현 법무법인 대청 대표변호사

Ⅰ. 발제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그리고 수원특례시의 예방·대응체계 구축 방안

구본용 前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그리고 수원특례시의 예방·대응체계 구축 방안
예방에서 조기 발견, 회복과 재발 방지까지
구본용
(전)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원장
(현) 소안심리상담센터장


수원특례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
핵심 메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과제
디지털 환경
스마트폰·광고·메신저를 통한 상시 접근
AD
복합 위험
또래문화·심리사회적 취약성·인지적 오류
지역 대응
학교·가정·상담기관·경찰·지자체 협력
02

수원특례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

청소년 도박, 어떻게 시작되고 심화되는가

01 광고·링크 노출



-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메신저 등을 통한 광고 노출
- 친구가 보낸 링크 클릭

02 호기심·또래 권유



- 호기심으로 한번 시도
- 친구·또래의 권유
-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

03 반복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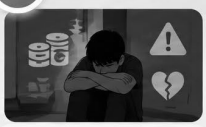
-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
- 점차 더 많은 돈을 걸게 됨
-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도박 시도

04 손실 만회 시도



-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금액을 베팅
- 도박 시간과 금액 증가
- 거짓말, 학업 부적응, 가족·또래관계 악화

05 채무·갈등·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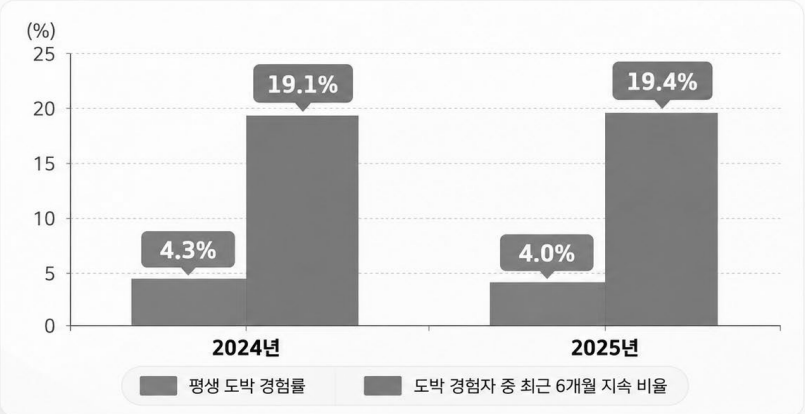


- 채무 발생 및 금전 갈취 위험
- 가족과의 갈등
- 학업 중단 및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
- 사이버범죄 등 다른 불법행위 연루 가능성

핵심: 첫 경험을 막는 예방과 반복 행동을 끊는 조기개입이 동시에 필요

수원특례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

2024·2025년 전국 조사: 경험률과 지속 비율



도박 경험률

4.3% → 4.0%

평생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이 감소

지속 비율

19.1% → 19.4%

도박 경험자 중 최근 6개월 동안 도박을 지속한 비율은 소폭 증가

출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발표 자료.
※ 지속 비율의 분모는 도박 경험자이며, 나머지 지표와 구분하여 해석해야 함.

2025년 조사: 예방교육과 광고 노출의 대비

82.8%

예방교육 경험



54%

도박 광고 노출



출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발표자료 | 두 지표는 서로 다른 경험을 측정

경기도 조사와 전국 조사는 구분해서 해석

전국 조사

2024년 학생 **13,368명**

평생 경험률 **4.3%**

경기도 조사

2025년 학생 **1,760명**

평생 경험률 **5.4%**

해석 원칙

- 표본·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 지양
- 지역 간 우열 단정 불가

경기도교육연구원(2025)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2024)

저연령화: 발달 단계별 예방교육으로 전환

초등학교

- 게임과 도박 구분
- 위험 광고 식별·거절



중학교

- 또래 압력 대응
- 확률·손실·인지적 오류



고등학교

- 채무·법적 위험
- 상담 및 전문기관 이용



수도권 자료 재분석의 최초 경험 평균 연령: 12.5세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사 재분석 인용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범죄 위험의 연결

경제적 위험

손실 확대 · 불법대출 · 채무



관계적 위험

협박 · 금전 갈취 · 가족 갈등



법적 위험

불법행위 가담 · 범죄피해



2026년 1~7월 10대 사이버도박 피의자 관련 경찰청 보도 통계

구조적 원인: 다섯 가지 위험 요인의 상호작용

01 디지털 접근성

광고·메신저·사이트 노출



02 또래문화

권유·소속감·성공담



03 심리사회적 어려움

스트레스·불안·학교 부적응



04 비합리적 신념

통제 착각·손실 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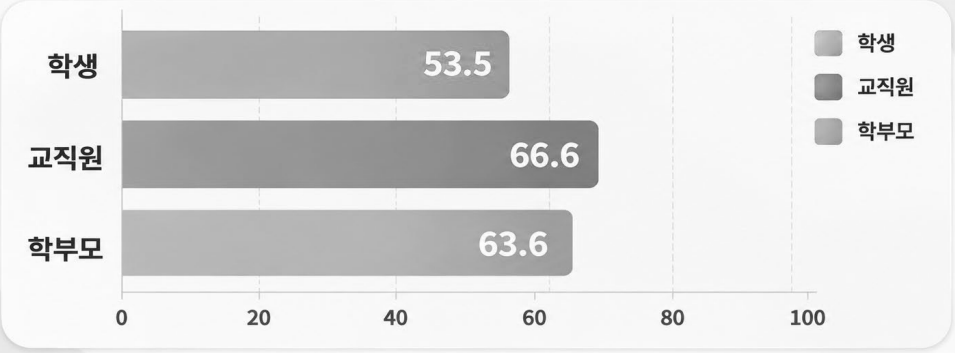


05 보호체계 한계

발견·상담·연계 역량 부족



교육주체의 문제 심각성 인식





교직원 66.6%

심각한 문제로 인식

인식이 곧 발견·대응 역량을 의미하지는 않음

출처: 경기도교육연구원(2025)

기존 대응체계의 정책적 공백

01 예방교육

- 횟수 중심 성과관리
- 행동 변화 확인 부족



02 조기발견

- 상담기관 인지도와
- 안전한 도움 요청의 장벽



03 기관 연계

- 학교 · 가정 · 전문기관
- 지원의 단절



수원특례시: 기존 기반을 연결할 시점

01 기존 활동

- 고백(Go-Back) 프로젝트
- 청소년교육의회



02 진단할 지표

- 경험률·상담 연계율
- 회복지원·재발방지 성과



03 정책 방향

- 새 기관 신설보다
- 기존 자원 연결·협업



수원특례시 및 수원교육지원청 공개자료에 근거

수원형 통합지원체계: 5단계 연속 지원

01 예방

02 조기발견

03 맞춤형 개입

04 회복지원

05 재발방지

학생의 위험 수준에 따라 개입 강도를 달리하고, 사후관리까지 연결

정책 제안의 핵심 구조

정책 제안 ① 지역 실태조사·위험요인 진단

01 조사 대상

- 재학생·학교 밖 청소년
- 학부모·교직원



02 조사 내용

- 광고 노출·도박 경험
- 또래 권유·도움 요청



03 조사 원칙

- 자발적 참여·익명성
- 개인정보 보호·낙인 방지



정책 제안 ② 참여형 예방교육과 조기개입

01 참여형 교육

- 상황별 거절 연습
- 청소년 주도 캠페인



02 조기 위험

- 교육·단기상담
- 안전한 도움 요청



03 고위험·위기

- 전문 선별평가·상담
- 채무·범죄피해·정신건강 연계



정책 제안 ③ 부모·교사 대응 역량 강화

01 부모

- 비난보다 안전 확인
- 채무·협박 여부 파악



02 교사

- 위험 신호 확인
- 초기 상담·보호자 협력



03 공통 지원

- 수원형 대응 안내서
- 기관 의뢰·연락 절차



수원특례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

정책 제안 ④ 지역사회 통합지원 네트워크



공동 절차·긴급 연계·익명 통계 점검

개인 상담정보 공유는 적법한 근거·동의 및 최소범위 원칙 준수

17

수원특례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

정책 제안 ⑤ 건강한 성장환경과 회복



18

수원특례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

정책 실행: 단계별 추진 로드맵

단기 | 기반 진단

- 지역 실태·자원 조사
- 협력기관 역할 정리



중기 | 시범 운영

- 학교급별 교육·선별
- 전문상담 연계



장기 | 성과관리

- 행동 변화·연계율
- 회복·재발방지 평가



19

수원특례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

토론회 핵심 질문

01 예방 책임

디지털 환경의 위험을
누가 함께 줄일 것인가?



02 교육 실효성

교육 횟수가 아니라
행동 변화를 어떻게 볼까?



03 연계 책임

발견 후 전문지원까지
누가 연결할 것인가?



04 회복 기회

처벌 외에 상담·적응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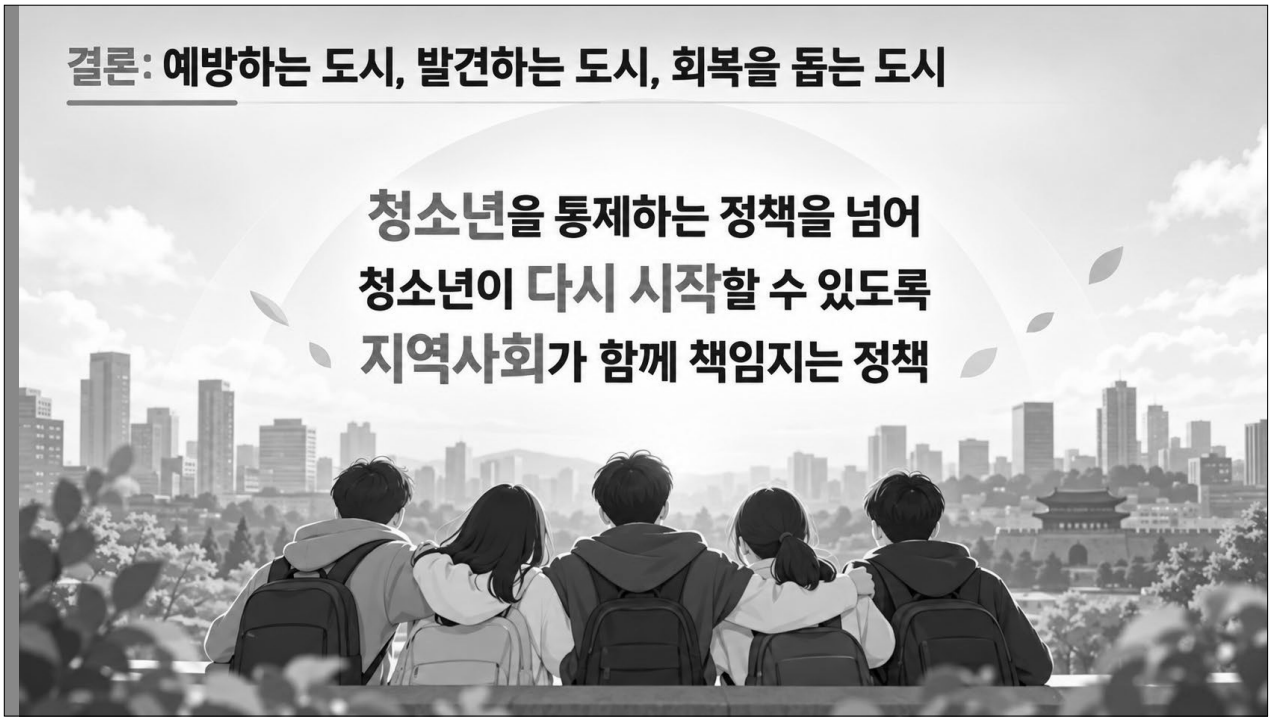


05 지역의 역할

제도·예산·협력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20


결론: 예방하는 도시, 발견하는 도시, 회복을 돕는 도시
청소년을 통제하는 정책을 넘어
청소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정책

II. 지정토론

01 현장에서 본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실태와 예방 p.17
└ 김대중 경기화성동탄경찰서 범죄심리사

02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가정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과 실천방안 p.18
└ 백인서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03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가정 내 갈등의 확산, 예방에서 회복까지 p.24
└ 이미영 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04 고위기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 과정 p.27
└ 이승현 법무법인 대청 대표변호사

현장에서 본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실태와 예방

경기화성동탄경찰서 범죄심리사 | 김대중

✓ 놀이처럼 시작한 사이버도박이 채무와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과 플랫폼 등 책임 강화, 나아가 사이버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 관리 체계 마련

1 현장에서 바라본 청소년 도박

❍ (조사 현장) 면담에서 만나는 청소년 상당수는 사이버도박을 범죄가 아닌 또래 놀이로 여기고, 친구들도 하니 무거운 범죄인 줄 몰랐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대다수

- 시작 이유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58.5%)가 가장 많았고, 경험 청소년의 12.7%는 도박 빚 때문에 사채를 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2 플랫폼 등 책임 강화

❍ (현황) 청소년의 54.0%가 도박 광고에 노출되었고(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 사이버도박 경험 청소년은 멈추기 어려운 이유로 쉬운 사이트 접근(53.7%)을 가장 많이 꼽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 (의견) 노출 경로를 가진 플랫폼, 금융, 통신 사업자가 책임을 나눠야 함

- 사이트는 막아도 주소만 바꿔 다시 열리므로(MTN, 2026. 10. 13.), 플랫폼이 광고 등록과 계정 단계에서 도박 광고를 먼저 걸러내도록 책임을 부과
- 청소년의 도박 의심 계좌 송금을 금융앱이 경고하거나 막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경기남부권으로 확대 (서울경찰청 외, 2026. 11. 시행)
- 자진신고 때 확인한 사이트 464개를 차단 요청했듯이(경찰청, 2026. 9.), 조사와 상담에서 파악한 사이트, 계좌, 유입 경로를 차단 기관에 넘기는 절차를 정례화

3 현장에서 바라본 사각지대

❍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은 도박 위험집단이 12.6%로 재학생(4.78%)보다 많았지만(데일리안, 2023. 11.), 국가 실태조사와 학교 예방교육 의무는 재학생만 대상

❍ (의견) 단도박을 위한 상담 및 모니터링 지원 기관 연계(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활용)

- 수원시 실태조사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수원시 주관 정기적 도박 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및 가정 내 갈등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과 실천방안

- 바른문화 확산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가정 조성 -

광교1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 백인서

Ⅰ.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현황과 문제 인식

1.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일상화와 위험성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더 이상 일부 청소년의 일탈이나 특정 가정의 문제로 한정할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불법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으며, SNS와 온라인 게임 등 청소년에게 익숙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도박 관련 광고와 유인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633개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3,481명을 조사한 결과, 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4.3%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도박 경험자 중 최근 6개월 이내에도 도박을 경험한 비율은 19.4%로 전년의 19.1%보다 소폭 증가했다. 도박 경험 유형에서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소년 도박을 단순히 경험률의 증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반복적인 도박 참여와 온라인 도박환경의 위험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특히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나 재미, 또래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거절할 수 있는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2. 개인의 문제에서 가정과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에 그치지 않고 학업과 교우관계, 심리적 안정, 가정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도박으로 인한 채무나 반복적인 금전 요구, 거짓말과 문제 은폐는 부모와 자녀 간 신뢰를 훼손하고 가족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부모가 강한 질책과 통제로 대응하고, 자녀는 이를 피하기 위해 문제를 숨기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

또한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또래 간 금전 갈등이나 불법사금융, 협박 등 추가적인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나 처벌만을 강조하기보다 예방과 조기 발견, 전문 상담과 가족관계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사이버도박의 핵심 문제는 단순히 도박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관계가 무너지고 도움을 요청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데 있다.

Ⅱ. 전문가적 접근과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

1. 예방교육을 넘어 조기 발견과 전문기관 연계로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대응은 일회성 예방교육이나 단순한 경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4년 「한국형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선별, 단기개입, 치료의뢰(K-SBIRT-AG) 매뉴얼」을 배포하고, 청소년의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입을 실시한 뒤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전문적 접근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예방 단계: 연령별 맞춤형 교육과 올바른 온라인 생활습관 형성
- 발견 단계: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험 징후 파악 및 초기 상담
- 개입 단계: 위험 수준에 따른 전문 상담과 치료기관 연계
- 회복 단계: 가족관계 회복, 일상 복귀 및 재발 예방 지원

특히 학교나 주민단체가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직접 담당하기보다는 위험 신호를 인식하고 적절한 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가정 내 소통과 가족관계 회복의 중요성

사이버도박 문제는 청소년 개인에 대한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도박으로 인한 갈등이 이미 가정 내 신뢰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면 가족을 함께 지원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무조건적인 질책이나 처벌보다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특히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부모가 모든 채무를 무조건 대신 해결하기보다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교육, 가족 상담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청소년에게는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에게는 자녀의 어려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3. 기존 대응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현재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과 대응에는 학교, 경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박문제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교육과 상담, 가족 지원, 지역사회 캠페인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관 간 연계와 지속적인 사후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예방교육 이후 위험 신호가 발견된 청소년을 어떤 기관으로 연결할 것인지, 상담 이후 가족과 학교에서는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 기관의 활동을 단순히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연결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Ⅲ. 지역사회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향

1. 지역사회 협력의 기본 원칙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는 학교와 가정, 행정기관, 경찰, 전문 상담기관, 지역사회 단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제이다.

학교는 예방교육과 조기 발견을, 가정은 관심과 소통을, 전문기관은 상담과 회복 지원을, 행정기관은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등 역할에 따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 단체들은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예방활동이 생활 속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기관이나 단체가 모든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는 것이다.

2. 관계기관별 역할 및 협력방안

참여 주체	주요 역할 및 협력 방향
학교·교육기관	예방교육, 위험 징후 파악, 전문 상담 연계
학부모·가정	자녀와의 소통, 조기 발견, 가족관계 회복
경찰	불법도박 범죄 예방, 청소년 유인행위 대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 위기 개입, 가족 지원
도박문제 전문기관	위험 선별, 전문 상담, 치료·회복 연계
수원시·관계 행정기관	정책 및 행정적 지원, 협력체계 조정
지역사회 단체	주민 참여, 공동 캠페인, 바른문화 확산

협력체계는 기존 기관의 기능을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소통과 공동사업을 통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전문기관 중심의 의뢰 절차와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Ⅳ. 지역사회 중심의 구체적인 실천방안

1. 청소년 참여형 예방교육과 바른문화 확산

기존의 예방교육이 위험성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과 캠페인은 또래관계와 온라인 문화를 반영한 예방활동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실천과제>

- 초·중·고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이버도박 예방 토론회 및 캠페인
- 예방 포스터, 숏폼 영상, SNS 콘텐츠 등 참여형 홍보활동
- 또래 청소년이 함께 만드는 건전한 온라인 생활문화 확산
- 문화·체육·봉사활동과 연계한 건강한 여가활동 지원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예방활동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 학부모 교육과 가족 소통 프로그램 확대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은 가정에서의 관심과 소통이 함께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부모가 자녀의 온라인 생활과 위험 징후를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미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관계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주요 실천과제>
- 학부모 대상 사이버도박 위험성과 초기 징후 교육
-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갈등 대처 프로그램
- 전문기관 연계 가족 상담 및 관계 회복 지원
-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수칙과 상담정보 제공
- 학부모 단체와 청소년 관련 기관의 공동 교육활동

이를 통해 청소년과 가족이 문제를 혼자 감당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역사회 공동 예방캠페인 정례화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활동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주민 참여로 이어져야 한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지역 행사, 공공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다양한 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실천과제>
- 학교 주변 및 청소년시설 연계 예방캠페인
- 청소년·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활동
- 지역축제 및 주민행사를 활용한 예방 홍보
- 지역사회 봉사단체 간 공동 캠페인
- 정기적인 예방활동과 추진 성과 공유

단순한 홍보 횟수보다는 청소년과 주민의 인식 변화, 참여의 지속성, 전문기관 연계 등 실질적인 효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

4.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캠페인, 상담과 회복 지원이 연결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실천과제>
-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 간 실무 협의
- 공동 예방교육과 캠페인 추진
- 전문 상담기관 안내 및 연계 절차 마련
- 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활동 연계
- 정기적인 성과 점검 및 개선과제 논의

특히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협력체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Ⅴ. 수원시 지역사회 실천을 위한 정책적 제언

수원시에서도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한 제도적 대응이 추진되고 있다.
2026년 10월 이동엽 수원특례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예방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실제 청소년과 가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전문기관, 학교, 지역사회 단 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수원시 차원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협력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존 청소년 지원기관과 경찰, 학교, 지역사회 단체들의 역할을 연결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초등학교 단계부터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회, 캠페인 등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학부모 교육과 가족관계 회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 상담과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사회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실천사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와 청소년시설, 주민단체, 봉사단체들이 각자의 활동과 연계하여 예방교육과 홍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예방사업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교육 횟수나 캠페인 참여 인원뿐 아니라 예방 인식의 변화, 전문기관 연계 실적, 가족 지원 참여, 후속 사업 운영 등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새로운 사업을 무조건 확대하기보다 기존 기관과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바르게살기운동의 역할과 종합 의견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시민의식과 바른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국민운동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역시 단순히 불법행위를 막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정직과 책임, 절제와 신뢰의 가치를 배우고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의 실천 가치와 연결된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광교1동위원회는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단체로서 청소년과 학부모, 주민들이 함께하는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와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방캠페인에 참여하고, 학부모와 주민의 관심을 높이며, 지역사회 단체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 수 있다.
다만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은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하거나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와 가정은 교육과 소통을, 경찰과 전문기관은 예방과 전문적 지원을, 행정기관은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지역사회 단체들은 주민 참여와 예방문화 확산을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종합 의견을 제시한다.

1. 청소년 사이버도박을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로 인식할 것.
2. 예방교육에서 조기 발견, 전문 상담, 가족관계 회복까지 연결되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3.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예방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할 것.
4. 학교·가정·전문기관·행정기관·지역사회 단체 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할 것.
5.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실천과제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를 추진할 것.

청소년 한 명을 지키는 일은 한 가정을 지키는 일이며, 한 가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이번 토론회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이 서로의 역할을 확인하고, 공동의 책임을 나누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바르게살기운동 광교1동위원회 역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가정 조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함께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2025.
2. 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형 청소년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한 선별, 단기개입, 치료의뢰(K-SBIRT-AG) 매뉴얼」, 2024.
3. 굿네이버스·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6 아동·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포럼」, 2026.
4. 수원특례시의회, 「수원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심사자료, 2026.
전문 상담 안내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 1336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가정 내 갈등의 확산, 예방에서 회복까지

한국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 이미영

Ⅰ. 배 경

1) 온라인 환경을 통한 도박 노출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이 불법 도박사이트, 온라인 도박성 게임, 각종 도박 유인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이다. 온라인 광고, SNS, 메신저, 또래의 권유 등 접근 경로가 다양해 청소년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도박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다.

2) 개인의 일탈을 넘어 가정과 사회의 문제로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중 대한 문제이다. 금전 손실뿐 아니라 부모·자녀 간 신뢰 훼손과 가족 갈등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가정 단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조기경고·치유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Ⅱ. 현황 진단

1) 시작 경로, 반복 참여의 원인, 가정에 미치는 영향

- **도박 접근 경로의 다양화**: 온라인 광고, SNS, 메신저, 또래의 권유 등을 통해 도박 관련 정보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불법 사이트는 도박을 게임이나 간단한 돈벌 이처럼 소개해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도박의 게임화와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게임과 도박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금전적 가치가 걸린 행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 **손실을 만회하려는 반복 행동**: 돈을 잃으면 그만두기보다 다음 참여에서 되찾으려 는 심리가 작동해 시간과 돈이 늘고, 중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 **또래관계와 인정 욕구의 영향**: 친구의 권유나 도박으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 으면, 위험을 알면서도 소외되지 않으려고 참여할 수 있다.
- **문제 은폐와 도움 요청의 지연**: 처벌이나 비난이 두려워 부모에게 숨기면, 가족이 문제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금전적 손실이나 관계 갈등이 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2) 가정 내 갈등 확산 구조

도박은 금전 문제에서 시작해 거짓말과 은폐, 부모의 통제,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가족 내 소통 단절로 이어지며 부모·자녀 갈등을 키운다. 특히 자녀가 도박 사실을 숨기면 부모의 통제와 추궁이 강해지고, 통제가 강해질수록 자녀는 더 숨기려 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요인별 양상과 필요한 대응은 <표 1>과 같다.

<표 1>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부모·자녀 갈등으로 이어지는 요인과 대응

구분	갈등 요인	구체적인 양상	필요한 대응
1	금전적 문제	용돈 소진, 반복적인 돈 요구, 빚 발생	금전 흐름 점검, 추가 자금 유입 차단, 채무 상담
2	거짓말과 은폐	도박 사실 및 온라인 활동 숨김	비난보다 사실 확인과 신뢰 회복 중심의 대화
3	부모의 통제	휴대전화 압수, 외출 제한, 반복적인 추궁	합리적인 이용 규칙과 공동 약속 마련
4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	수치심, 불안, 충동, 손실 만회 욕구	전문상담 및 심리적 지원
5	가족 내 소통 단절	대화 회피, 언쟁, 서로에 대한 불신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연계

따라서 갈등 완화를 위해서는 비난보다 사실 확인, 통제보다 공동 약속, 개인 대응보다 전문 지원 연계를 원칙으로 하는 가정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

3. 정책 방향

1) 처벌 중심에서 예방·회복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후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조기경고·치유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계별 핵심 과제와 협력 주체는 <표 2>와 같다.

<표 2> 3단계 정책 대응체계

구분	핵심 과제	세부 내용	협력 주체
사전예방	예방 캠페인, 또래 예방 리더, 가족 참여형 교육	위험성과 도움 요청 방법 안내, 거절법 교육, 용돈 관리·온라인 결제·가족 이용 규칙 논의	학교, 청소년기관, 가정
조기경고	위험 신호의 조기 발견과 연계	위험 신호 발견법 교육, 도움 요청 방법과 전문기관 안내, 위험 사례의 보호 절차 연계	학교, 지역사회 안전망, 전문기관
치유	상담과 회복 지원	전문상담과 심리적 지원, 부모교육과 가족상담, 책임 교육과 건강한 일상 복귀 지원	전문기관, 가정

2) 지역사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예방활동

- **청소년 도박 예방 캠페인**: 학교 축제, 청소년 행사, 지역 축제 등에서 도박의 위험성과 도움 요청 방법을 안내하고, 청소년이 직접 만든 포스터·영상·퀴즈를 활용한다.
- **또래 예방 리더 양성**: 도박 권유 거절법, 친구의 위험 신호 발견법,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교육하며, 또래 상담이 전문상담을 대체하지 않도록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한다.
- **가족 참여형 예방교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 도박의 위험성, 용돈 관리, 온라인 결제, 건강한 여가생활을 논의하고 가족 간 이용 규칙을 만든다.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주민자치조직, 청소년기관, 학교, 학부모, 상담 전문가가 협력해 예방 홍보와 교육, 전문기관 안내를 진행하고, 실제 위험 사례는 적절한 보호 절차를 통해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소년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거절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3) 가정에서의 대응과 보호자의 역할

부모는 자녀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회복을 지원하는 보호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비난보다 사실 확 인과 신뢰 회복 중심의 대화를 우선하고, 합리적인 이용 규칙을 자녀와 함께 정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 채무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4. 결 론

1) 핵심은 처벌보다 조기 예방과 회복

청소년 사이버도박은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도박이 반복되면 금전 적 손실과 거짓말, 부모·자녀 간 신뢰 훼손, 정서적 불안, 학업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개인의 책임만 강조하거나 부모에게 모든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되며, 다음과 같이 각 주체가 역할을 나누어 함께 대응해야 한다.

- **학교**: 예방교육과 위험 신호의 조기 발견
- **가정**: 소통과 보호
- **전문기관**: 상담과 치유
- **정부·지자체**: 온라인 환경 개선

특히 도박 문제가 확인된 청소년에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치는 동시 에,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위기 청소년들의 범죄 노출 과정

법무법인 대청 대표변호사 | 이승현

1. 고위기 청소년에 이르는 과정

위기 청소년은 호기심이 많고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 위기 청소년들은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화 됨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범죄에 노출되기 쉬우며, 그 과정에서 친구로부터 단순 호기심, 놀이 등으로 가볍게 여기며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에 노출된다.

2. 위기 청소년의 범죄 가담 과정

1) 금전부족

위기 청소년은 단순 금전소비문제가 아닌 주변 친구들 및 또래 학생들로부터 인터넷 도박을 접하게 되어 금원부족에 시달리게된다.

이처럼 위기 청소년은 최초부터 도박이라는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며 이로 인하여 더 많은 범죄에 노출되기도 한다.

2) 청소년 도박의 실태

우리 법원은 도박의 의미를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한 사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현재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는 것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만연한 상태이다. 아울러 인터넷 도박의 경우 첫충전시 충전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유입하고 있어, 위기 청소년이 쉽게 유혹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의 경우 이용자가 금원을 많이 획득한 경우 해당 ID, IP를 차단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하여 실질적으로 금원을 획득할 수 없는 구조이다.

3) 소결

이처럼 위기 청소년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인하여 금전 부족을 겪을 경우 쉽게 범죄에 빠지게 된다.

3. 인터넷 도박으로부터 파생되는 위기 청소년의 범죄

1) 사기

위기 청소년이 인터넷 도박에 중독되어 금전이 필요한 경우 우선 친구, 부모님에게 학원비, 교재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아가게 된다. 그러나 금원의 사용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기이기에 해당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 시기에는 비교적 초기 단계로 적극적으로 위기 청소년을 관리하여 향후 파생되는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2) 각종 강력 범죄

영화에도 소위 '각목'이라는 범죄가 소개된 바 있다. 각목이란 위기 청소년들이 각자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유인할 직책, 모텔에 함께 들어갈 직책 및 흉기들을 소지하고 공갈을 저지를 직책을 사전 모의한 후 이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각목은 특수 공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3) 마약 범죄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을 뿐아니라, 마약에 관련된 범행을 하며 금원을 벌 수도 있다. 실제로 여러 마약 사범들이 마약 운반 등의 범죄를 저지른 계기가 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로 힘들어하던 중, 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유혹되어 소위 '드라퍼'라는 마약 운반책을 하다가 중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특히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마약을 투약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일상과 멀어진 삶을 사기도 한다.

4) 소결

이상과 같이 위기 청소년들은 최초 단순 놀이 정도로 여긴 인터넷도박으로부터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다.

4. 결론

청소년은 향후 사회를 이끌어 갈 자라나는 새싹들로 지속적인 범죄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위기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범죄 유입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강조된다.